

대통령 연설·인사서 극비 외교자료까지... '순실靑政'

최순실 컴퓨터 파일 200여개 분석해보니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일정 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발언자료를 받아 수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폐기 처리된 컴퓨터의 파일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0여개의 파일 중 44개가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모두발언 같은 '공식 발언 자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은 박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말씀자료' '5·18 33주년 기념사' '신년사(방송 3사)' 등 연설문과 공식 발언자료가 있다. 또 국정 운영이나 경제정책 등 공무와 관련한 자료도 있는 상태였다. '정부조직개편안 평가' '가계부채-B' '고용복지-업무보고-참고자료' 등의 이름을 단 파일이다.

정책 자료뿐 아니라 '역대 경호처장현황'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선임관련'과 같은 중요한 청와대 인사 파일도 나왔다. '식사, 티타임 대상자' '청와대회동(1228)' '121228 청와대회동-수정'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자료'와 같은 파일도 있어, 대통령 연설문과 '다보스 포럼 특사 파견'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자료'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 문서다.

중국 특사단 파견 서류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집권 뒤 최초로 보낸 특사 파견지가 미국이 아닌 중국이란 점은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됐기 때문에 눈길을 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중·일·러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에 먼저 특사를 보냈다. 박근혜정부가 외교의 무게중심을 중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특사단에 어떤 인물을 보낼지 추천하는 서류를 왜 최씨가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증이 커지는 대목이다.

중파견 특사 추천 인물 서류

당선 소감문·신년사도 챙겨

대통령 패션·장신구 파일도

리가 집권 뒤 최초로 보낸 특사 파견지가 미국이 아닌 중국이란 점은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됐기 때문에 눈길을 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중·일·러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에 먼저 특사를 보냈다. 박근혜정부가 외교의 무게중심을 중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특사단에 어떤 인물을 보낼지 추천하는 서류를 왜 최씨가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증이 커지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후보 시절 유세문과 선거일정, 인수위 관련 서류들도 있었다. 선거 막바지인 '11일차 서울 유세문'은 물론, '3차 TV연설문' 'TV토론 관련' 파일도 눈에 띈다. '유치원 반론' 파일은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유치원과 관련해 대응을 준비했던 자료로 보인다. '위기에 강한 글로벌 리더' '여성대통령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 등의 파일은 대통령 선거 때 이미지 구축 작업도 최씨의 관심사였음을 알게 한다. '신문 광고(안)' '표지' 등의 이미지 파일도 자주 등장하며, '인수위 엠블럼' 한글 파일을 보면 최씨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엠블럼 이미지까지 꼼꼼히 챙겨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선되고 나서도 최씨는 인수위 일을 직접 챙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인 소감문' '당선인 신년사(신문용)' 파일도 최씨의 컴퓨터에서 나왔다. '취임식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사업체' 파일로 미루어볼 때 취임식 전 반대 꼼꼼히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패션과 사생활에 대한 사진 자료들도 있었다. 누리꾼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하는 사안 중 하나는 최순실 파일 중에 '웃1' '웃1-1' '웃3'과 같은 이미지파일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평소 최씨가 대통령의 옷과 장신구, 가방 등까지 꼼꼼히 챙긴다는 소문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 대통령 "국민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려 송구"

취임후 첫 대국민 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최순실 씨에게 공식 연설문 등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읽어 내려갔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처음으로 신년기자회견을 제외하고 특정 현

안을 놓고 춘추관에 내려와 취재진과 대면한 것은 지난해 8월6일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담화 발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사과문을 낭독했으며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브리핑룸을 떠났다.

사과문 발표 말미에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맺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정영국 대변인 등 주요 참모들도 어두운 표정으로 함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펜싱 국가대표 출신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는 광주 출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 고영태(40) 씨가 광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펜싱 선수 출신인 고영태는 광주에 있는 중 고교를 졸업한 뒤 한국체대로 진학했다.

펜싱 국가대표를 지낸 고씨는 2008년 패션 업계에 발을 들이며 잡화 브랜드 '빌로밀로'를 만들었고, 이후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협찬 등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초 당선인 신분으로 자주 들고 다녀 눈길을 끈 회색 핸드백이 빌로밀로 제품이다.

한편 고씨는 최순실씨가 소유한 독일 현지 법인 '다블류K'의 대표이사도 등재돼 있다. 최근 등기부에서 이름이 지워져 그 배경을 놓고 추측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기록물·기밀 여부 애매... 형사처벌 쉽지 않을 듯

연설문 유출 관련자 수사 이후 재판 넘기기도 어려울 듯

현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련자 처벌 여부가 논란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취임 후 최씨에게 일부 자료들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고 관련 의혹을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주요 쟁점은 유출했다는 연설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해당 내용이 공무상 비밀·기밀인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대통령 권한 대행 및 당선인 포함)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이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접수·보유하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한다.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조문 해석상 연설문 역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다.

특히, 대통령 말씀 자료나 연설문이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발인 이전에 이를 외부로 유출

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용보다는 시점과 행위가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재판에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원은 대통령기록물 위반 여부에 대해 그동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를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나 '정운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조윤천 전 청와대 공직기밀비서관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게 대표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 대통령 사과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자리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 홍보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편안하게 떠나세요!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만 기준, 여행비용 가입제외항목(1만) 국내항공료 5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전차)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료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유예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약관)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리(영업)인사/가이드(봉사)선박관광, 각종 배차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성황에 따라 다름

추천1 무안↔일본(기타큐슈, 오사카/북해도) 직항 전세기

- 출발일 : 2016.12.16 ~ 2017.2.26 /3박4일
- [초특가]규슈관광(벳부/유후인/후쿠오카) **499,000~**
 - [실속]규슈관광(벳부/유후인/후쿠오카) **599,000~**
 - [실속]규슈관광(스지유고급료칸숙박/벳부/유후인/후쿠오카) **838,000~**
 - [품격] 남큐슈 미야자키/가고시마 **998,000~**
- 출발일 : 2017.1.27 ~ 2017.2.26 /3박4일
- [실속]오카사/나라/교토/고베 **989,000~**
 - [품격]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98,000~**
 - [고품격]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198,000~**
 - [고품격]★오사카/북해도/도야/오타루★ **1,45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 출발일 : 2016.12.28 ~ 2017.1.21 /3박5일
-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398,000~**
 -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 [골프+관광]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798,000~**

추천3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 출발일 : 2016.12.7 ~ 2017.2.26 /3박5일
-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 [품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 [품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 출발일 : 2016.12.7 ~ 2017.2.26 /3박5일
-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 일일식사, 관광지 입장료, 숙박,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팀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 (골프상품만 클럽 증식 불포함)